

벨기에 교도소 재소자 마약문제 '심각'



벨기에 교도소 재소자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벨기에 연방정부 부가 마약 사용 재소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브뤼셀 인근 한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의 80%가 마약을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5일 '연합뉴스'가 벨기에 일간지 '쉬드프레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브뤼셀 인근의 생-질트 교도소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교도소에 3개월 이상 수감됐던 재소자 가운데 80%가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약을 사용한다."고 폭로했다.

이 의사는 "직접적으로 마약을 이용하는 재소자만 따지면 40~50%에 이른다."면서 "수감 기간이 길수록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 비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수감된 재소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약은 전염되는 질병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벨기에 당국은 교도소 재소자들의 마약이용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에 나섰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벨기에 연방정부의 공중보건부 장관이 지난 3일 이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벨기에 당국은 "마약을 사용하는 재소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피하도록 돕고, 교도소의 안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정부는 시범 프로젝트가 성과가 있으면 전체 교도소에 이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리우시, 군병력 철수 예정에 치안 불안 고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공공치안 확보를 위해 투입된 군병력이 올해 말 철수할 예정인 가운데 총격전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연합뉴스'가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리우에서 활동하는 범죄 연구단체 '포구 크루자두(Fogo Cruzado)'는 지난달 리우 주에서 발생한 총격전은 877건으로 지난해 9월(567건)보다 55% 늘었다고 밝혔다.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리우에 군병력 투입을 전격 결정했으며, 군은 경찰과 함께 리우 시내 빈민가를 중심으로 300여 차례 작전을 벌이는 등 범죄조직 퇴치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군병력 투입 이후에도 총격전이 줄지 않는 데다 범죄조직원들과 총격전으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철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병력은 올해 말까지만 활동하고 철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안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병력이 빠져나가면 재앙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도 리우 주민의 72%가 군병력 주둔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병력 철수를 지지하는 의견은 21%에 그쳤다.

앞서 비정부기구(NGO)인 브라질공공안전포럼(FBSP)의 조사에서 리우 시민 가운데 3분의 1이 최근 12개



▲ 리우 빈민가 인근에 배치된 군인들(위 사진), 리우 시내 놀이터에서 순찰활동을 하는 군인들 모습(아래 사진)

월 사이에 총격전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총격전과 유탄 사고, 무장강도에 의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치안 문제 때문에 리우 시를 떠나고 싶다는 답변은 73%에 달했다.

인도, 러시아 미사일 구매 ... 미, 즉각 제재 경고

인도 정부가 5일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금지한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뉴스1'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도착해 방문 일정을 수행해왔다. 양국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계약 규모가 50억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S-400은 러시아가 개발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비교되며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은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한 인도를 상대로 즉각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무기 거래를 금지한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곧바로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 인만큼 쉽게 제재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도에 제재를 가할 경우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일본, 호주를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부활교회

St. Anselm's Episcopal Church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Blvd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 (개인별 통보)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